

농생명식품분야 대표기업 육성 추진

바이오진흥원, 도내·외 농생명식품기업·관련 유통·ICT기업 20개사 선정 계획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7일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외 농생명 식품기업, 식품관련 유통 및 ICT 기업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의 혁신형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술 기반 우수 기업이 도내 농생명·식



품산업의 구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외 농생명·식품 산업 제조기업 및 식품 관련 유통·ICT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 평가,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대표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바이오진흥원은 이번모집을 통해 창업, 성장 리딩, 식품 관련 유통 및 ICT 분야에서 총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최소 2년에서 각 단계별 성과요건 충족 시 평가를 거쳐 최대 7년까지 기술 역량강화 및 고도화 지원, 사업화 지원, 성장전략 수립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대표기업 지원사업이 전북 농생명 식품기업의 성장을 견인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식품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식품 산업 구조 확대를 위해 식품 관련 유통 및 ICT 기업까지 모집 범위를 넓혔다"며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표기업 육성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바이오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기한은 오는 2월 28일(금)까지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서남상의, 세무 공무원 등 40여명 참석 상공인 간담회 개최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평근 정읍세무서장과 세무 공무원 및 상공인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업 운영과 관련된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정 지원 △회사경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안내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와 함께 상담 부스를 설치하여 △법인세 공제·감면 △기업승계 등 1:1 컨설팅도 실시했으며,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합리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요즘 상공인들이 직면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추진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을=김대환기자



전북농협, 2025년 지도사업 활성화 위한 전략회의 개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0일 도내 14개 시군회원지원단원 등 20여명이 모여 2025년 지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농협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을 위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농촌 활력화 유도, 사업활성화 및 농정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의 질 향상, 지역사회공헌을 통한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찾아가는 정춘버스, 왕진버스 △상시 이상기후 대응체계 가동 △농촌인력증가사업 및 농촌일손돕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을 년 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2025년 전북농협은 본연의 업무인 농촌·농업인을 위한 지도사업을 강화하겠다"며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농업', '행복농촌'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중기청, 창업기업 373개사 선발,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지원

창업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하 '도약기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73여 개사 창업기업을 선발하며,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함께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는 '일반형',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의 3가지 유형 중 필요자금 규모 및 사업화 방식에 따라 1개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먼저 '일반형'에 선정된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과 각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일반형' 유형 중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성공환경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성공환경형'에 선정될 경우 기본 지원 사업비의 최대 50%(최대 1억원)를 추가 지원받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기업 협업형'은 KT, LG전자 등 대기업 9개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 평균 1.3억원 내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병행형' 선정기업은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 평균 1.5억원)을 지원받고, 추가로 한국벤처투자(KVIC)에서 SAFE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매진 투자(최대 2억원)를 받을 수 있다.

전국 11개 주관기관에서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2025년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현장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전북지역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인 탐소산업진흥원에서는 28일 오후 2시 진흥원 기술교육동 3층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은행사업비 74억원 집행, 상반기에 75%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56억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8억원, 과잉규모화 8억원,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2억원 총 74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56억원을 배정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을 적극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된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대위변제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돕고, 해당 농업인에게 7년에서 10년 동안 매입 필지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임차기간 동안 매도한 필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매 시에는 필지별로 감정평가 환매와 정책요율 환매(고정요율 또는 변동요율중 선택)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환매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최장10년) 할수 있다. 참여 자격은 영농경력(경영체

최초등록일기준) 2년 이상의 70세 미만 농업경영체(65세~69세이하자 진흥구역 농지)로,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이다. 매입상한은 6~11.3만 원/㎡이며, 지원금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15억원, 농업법인의 경우 20억원이다.

또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9ha 규모의 고령농 소유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기계 산업 발전 민관협력 방안 모색'

농진청, 민관협의체 구성 등 농기계 산업 발전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 연구정책국 김병서 국장은 지난 21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총남 천안식)에서 열린 국내 농기계 산업체 임원진 간담회에 참석,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농기계 주요 제조업체인 대동, IS엠트론, TYM의 임원들과 농촌진흥청 관련 부서장 등이 자리를 같이해 상생협력과 농기계 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청이 운영 중인 발농업기계화 연구협의체(2023년 조직)와 '첨단농기계 연구협의체(2020년 조직)'를 통합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기계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농기계 보급 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농기계 산업계 임원들은 청이 보유한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도랑' 등의 정보를 폭넓게 공개해 기업의 농업서비스 개발



농촌진흥청 김병서 국장은 지난 21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열린 국내 농기계 산업체 임원진 간담회에 참석,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 촉진될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및 발농업기계화를 제고를 위해 선진기술을 보유한 민간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